

학습동행 우수멘티 참여 수기②

프로그램명	학습동행
<p>① 학사경고를 받은 (혹은 성적이 좋지 않던) 학기의 내 모습은 어땠나요?</p>	<p>내가 학사경고를 받은 것은 지난 2018년 2학기였다. 나는 16학번이지만 학교생활과 학과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적응을 잘 못해서 1년 반 동안 휴학을 했다. 복학 후에 나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고, 결국 기말고사를 다 치르지 못하고 종강을 한 달여 앞두고 전 과목을 드랍하게 되어 학사경고를 받게 되었다. 그 때가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겪었던 가장 큰 시련이었고 2019년에 1년 동안 다시 휴학을 하면서 학교를 자퇴할 마음도 먹기도 했다.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을 벌면서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다. 복학 전 마지막 학기에 봤던 중간고사는 나름 성적이 잘 나왔지만 수많은 팀플과 학내 인간관계 및 신입생들 사이에서 강의 내용에 어려움을 겪고 적응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괴로움을 느껴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지내기 어려웠다. 원래 경영학부이지만 학과 공부가 재미가 없어서 타 학과 수업을 들어보려고 언론홍보학과 전공들로 시간표를 짜고 복학을 했기 때문에 1학년 전공 기초 과목을 듣지 않고 2학년 과목을 바로 들어서 더 어려웠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었다.</p>
<p>② 학습동행에 참여하며 어떤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어떤 도움을 얻었나요?</p>	<p>학습동행을 통해 가장 처음에 하게 된 것은 팀 모임이다. 학교에서 나와 같이 학사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학우들과 성적이 좋은 멘토 한 명이 4월 중순에 다 같이 만나서 첫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번 학기동안 어떻게 학습동행을 이어나갈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몇 주간의 팀 모임을 통해 같이 만나서 공부도 하고 멘토로 부터 학습법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아무래도 같은 경영대학우들이라 보니 학과가 달라도 배우는 전공과목들이 비슷하고 겹치는 수업도 있어서 공부 방식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 물으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학습동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장 좋았던 것은 당연히 학습코칭이었다. 사실 학습코칭을 복학 전 겨울 방학 때 한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학사경고로 인한 수강신청 학점 제한을 풀기 위해 한시적으로 받았던 것이어서 2회에 그쳤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얻진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학습코칭을 무려 5회에 걸쳐 받으면서 코치님으로부터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정말 많이 발전했다며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p>
<p>③ 학습동행 프로그램과 함께 노력하며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요?</p>	<p>가장 어려웠던 점도 역시 학습코칭을 하는 것이었다. 5주 동안 코치님을 만나면서 매주 코치님이 내주시는 목표 작성하기, 30분 시간표 쓰기, 기상 시간 고정하기 등 학습법과 생활 습관 전반에 걸친 다양한 코칭을 받으면서 매주 받은 과제들을 되새기며 습관화하는 것이 힘들었다. 초반에는 거의 제대로 해가지 못하기도 하고 코치님께 보고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보고를 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다. 매주 완벽했던 것은 아니지만 코치님도 매주 찾아올 때마다 변화가 보인다고 할 정도로 나에게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일단 학습코칭을 하면서 나는 코치님이 하라고 부탁해준 것은 거의 다 최소한 실행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했다. 까먹을까봐 핸드폰 메모장에 내용을 적어가기도 하고 코치님도 그런 나의 노력을 알아서 이번 주 과제를 문자로 따로 보내주시기까지 하셨다. 그</p>

	<p>리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거짓말을 하기 보다는 솔직하게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걸 가장 개선하고 싶은지 코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진솔한 조언을 구했다. 일단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항상 실천하려고 노력했다.</p>
<p>④ 학습동행과 함께 성공한 이번 학기 나는 무엇이 달라졌으며, 앞으로의 새로운 다짐은 어떠한가요?</p>	<p>단순히 성적의 측면으로만 따지면 아직 성적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좋은 성적을 받았을 것이다. 시험을 어떻게 치르고 나왔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받았던 모든 성적 중 가장 최상위의 성적을 받았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예상하고 있다. 사실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공부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고 항상 시험공부도 과제도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학기도 학습동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과제도 계속 몰아서 내고 밤낮이 바뀐 생활 패턴으로 인해 주로 새벽 시간대에 과제를 급하게 해서 제출하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학습동행을 통해 매일 조금씩 꾸준히 공부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5월 초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공부를 했다. 스케줄러도 열심히 작성하고 밤낮이 바뀐 생활 패턴도 바꾸어 오전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점심에 독서실로 공부를 하러 가는 성실한 대학생이 되었다. 사실 시험 막바지에 많이 지치고 미리 해두었다는 안도감에 나태해지기도 해서 엄청난 성적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명 예전의 게으르고 나태한 나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학기부터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감이 잡혔다. 방학 때도 또 다시 학습코칭을 받으며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인생의 장기 계획을 세우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p>
<p>⑤ 내가 멘토(Mentor)가 된다면, 멘티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싶은가요?</p>	<p>내가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멘토의 자질보다 멘티 스스로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멘토가 아무리 멘티에게 시간과 관심, 노력을 많이 쏟아 부어도 스스로 바뀌겠다는 굳은 심지와 강한 다짐이 없으면 절대 일궈낼 수 없는 변화와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나는 이번 학기에 코치님이라는 멘토와 함께 많은 변화를 이뤄냈으므로, 멘토가 된다면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나도 해냈으니 너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해주고 싶다. 이번 학기의 내가 이뤄낸 성과와 발전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는 공감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멘티 학생들의 현재 상황을 들어주며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과정을 거치면 분명히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멘토와 멘티가 함께 만들어가면 학습과 인생의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p>
<p>추천합니다!</p>	<p>▪ 구체적으로 어떤 학우들에게 학습동행을 추천하고 싶은가요? 학습동행을 단지 상금을 받기 위해서, 학사 경고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는 금전적이고 수단적인 이유로 참여하면 큰 성과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또래를 만나 생각을 공유하고 상황을 공감하면서 학기 말까지 함께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다. 스스로 현 상황을 바꾸고 싶은 열망이 있고, 앞서 살아온 삶에 대한 반성과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은 열정 가득한 사람들에게 정말 추천한다.</p> <p>▪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p>

앞에서도 말했지만 외부의 자극이나 외적인 동기부여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 된 행동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멘토와 코치를 만나도 그저 내가 신청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억지로 과제처럼 한다는 느낌을 가지면 절대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습동행을 통해 단지 학습에 관한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변화에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우수 멘티 그 이상의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